



# 금속민투위

분쇄! 노동탄압  
강화! 산별노조  
완성! 주간연속2교대  
쟁취! 현장권력  
철폐! 비정규직

■ 발행인 : 의장 김 봉 윤 ■ 발행처 : 선전실(25-17호) ■ 게시기간 : 09월 13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대표 이 흥 진

## 조합원 분노 하늘을 찌른다

###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깨춤 추는 사측

### 덩달아 얄전하고 공손하게 정신줄 놓은 듯한 집행부

9/07(수) 정상근무까지 해가며 추석 전 마지막 집중(?) 교섭에서 사측은 추가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그리고 곧이어 '교섭중단과 9/20(화) 까지 정상근무' 라는 쟁대위 지침이 알려지자 현장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듯 완전 난리가 났다.

추가 제시도 안하는 사측에게 강력한 투쟁배치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얄전하고 공손하게도 9/20 까지 정상근무로 화답하는 집행부와 쟁대위를 향해 조합원들은 "전면파업 때려도 모자랄 판에... 미친 새끼들 아이가" 라고 쌍욕까지 해가며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기대치 낮출려는 김빠기 작전 절대 안 통한다

### 연휴 이후 전면파업으로 제대로 한 판 붙자!

사측은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딱 낮추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추석연휴 이후 적당히 끝낼려는 '김빠기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 오판이다. 노동조합 29년 동안 투쟁으로 단련된 조합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는 연휴 기간 동안 그동안의 전술적 오류를 제대로 반성, 분석하여 사측의 이러한 간교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사측이 깜짝 놀란 강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무참히 짓밟힌 조합원 자존심 회복의 시작이고, 연휴 이후 전면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임투 승리하는 것이 사측에 짓밟힌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 흠족한 성과로 임투 마무리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길 나서야 하지만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도 가야 할 고향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돌아와 현장의 힘으로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향길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금속민투위 조직원 일동